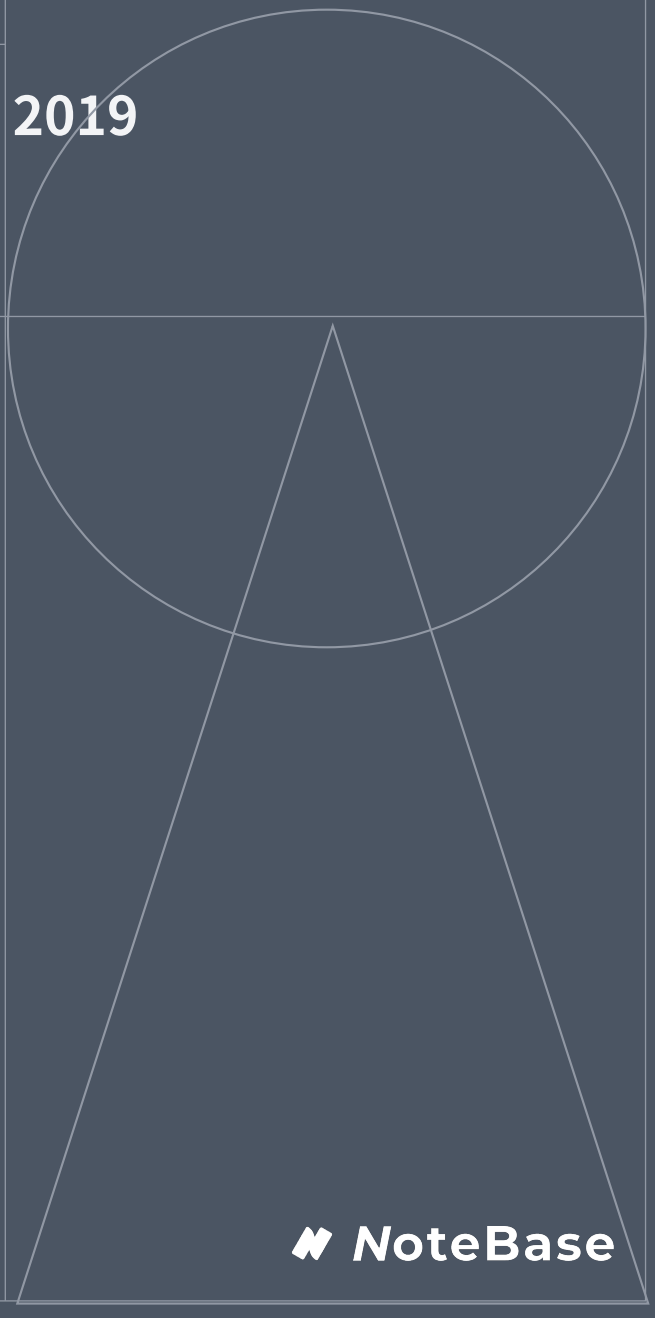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국어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국어 · 2019

공무원/지방직/7급 · 국어 · 2019

문 1.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현주가 취직이 되었대. ㉠이는 참으로 잘된 일이야.
◯ 지금 사는 ㉡그 집이 싫으면 다른 집을 알아보자.
◯ 쟤는 우리가 싫어했던 ㉢저것이 마음에 든대.
◯ 어르신, 제가 ㉤저 건물까지 부축해 드리겠습니다.

① ㉠: 앞에 발화된 진술의 내용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② ㉡: 화자와 청자 모두 모르는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③ ㉢: 화자는 모르지만 청자는 아는 내용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④ ㉤: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가까이 위치한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시 대명사 '이·그·저'가 앞선 발화 내용을 가리키는지, 또는 화자·청자와 대상의 거리 관계를 나타내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는 화자에게 가까운 대상이나 앞서 말한 내용을 가리킬 수 있다. '그'는 청자에게 가깝거나 화자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 '저'는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먼 대상을 가리킨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현주가 취직이 되었다'라는 바로 앞의 진술 전체를 '이는'이 가리킨다. 따라서 앞에 발화된 진술 내용을 지시한다는 설명이 옳다.
② X: '그 집'은 화자와 청자가 전혀 모르는 집을 뜻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모두 모르는'이다. 올바르게는 화자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특정 집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③ X: '저것'은 화자는 모르고 청자만 아는 내용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화자는 모르지만 청자는 아는'이다. 올바르게는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
④ X: '저 건물'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가까운 건물을 가리키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가까이 위치한'이다. 올바르게는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멀리 위치한 대상을 가리킨다.

오답 포인트

②는 '그'를 미지의 대상으로, ④는 '저'를 가까운 대상으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지시 대명사는 대상의 인지 여부와 화자·청자 사이의 거리 관계를 함께 따져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지시어가 앞 문장 전체를 받는지 확인한다. 사물을 가리키면 '이=화자 쪽', '그=청자 쪽 또는 서로 아는 대상', '저=화자·청자 모두에게 먼 대상'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이=앞말·화자 쪽, 그=청자 쪽·공유 대상, 저=둘 다 먼 곳이다.

NoteBase

문 2. 다음을 고려한 보고서 작성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주제: 주거지의 관광 명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 목적: 북촌 한옥 마을, 이화 마을 등의 주거 지역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기존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이 위협받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① 외국의 유사한 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②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둔 관광 업체의 경영 실태 및 매출 실적을 분석한다.
③ 전문가 자문 회의와 주민 토론회를 열어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④ 대상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보고서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조사 대상과 자료 수집 방법을 정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고서 작성 방안은 주제인 '주거지의 관광 명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과 목적에 제시된 '기존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에 직접 도움이 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한다. 주민 피해 사례와 주민·전문가의 의견은 개선 방안 마련과 연결되지만, 관광 업체의 매출 실적은 주민 주거 환경의 문제를 파악하는 자료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외국의 유사 정책 사례를 조사하면 관광지화로 생긴 주거 문제를 줄인 방법과 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므로 개선 방안 마련에 적절하다.

② X
틀린 표현은 '관광 업체의 경영 실태 및 매출 실적'이다. 이는 관광 사업의 수익을 파악하는 자료일 뿐, 기존 거주민의 주거 환경이 위협받는 문제와 그 개선 방안을 직접 조사하는 자료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주민의 생활 불편, 소음·쓰레기·주거비 부담 등의 피해 실태를 분석해야 한다.

③ O
전문가 자문과 주민 토론회는 관광지화의 원인·영향 및 실현 가능한 개선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이므로 목적에 맞는다.

④ O
주민 면담으로 실제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면 문제의 양상과 우선 해결 과제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②는 '관광'이라는 공통어 때문에 관련 있어 보이지만, 보고서의 초점은 관광 업체의 수익이 아니라 관광객 증가로 기존 주민의 주거 환경에 생긴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제와 목적에서 조사 대상과 해결하려는 문제를 먼저 찾고, 각 자료가 그 문제의 원인·실태·대안 중 하나를 직접 밝히는지 판단한다. 사업자 수익처럼 목적과 거리가 먼 자료는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보고서 자료는 '주제·목적에 직접 연결되는가'로 판단한다. 주민 주거 문제 보고서에서는 주민 피해와 개선책 자료가 핵심이다.

NoteBase

문 3. 밑줄 친 어휘 중 잘못 쓰인 것으로만 묶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혼자 낯선 이의 집에서 숙식을
㉠ 붙인다는 것은 분명 힘에 ㉡ 부치는 일로 보였다. 오늘은
측은한 마음에 말을 ㉢ 붙여 보았지만, 아무 대답 없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우표를 ㉣ 부치고 있을 뿐이었다.
㉤ 붙여 먹을 땅 한 평 없던 아버지일지라도 그 아이가
유일하게 정을 ㉥ 붙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붙이다’와 ‘부치다’의 쓰임을 문맥에 맞게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붙이다는 어떤 것을 다른 것에 닿게 하거나 관계·감정을 생기게 하는 말이다. 따라서 우표를 붙이고, 말을 붙이며, 정을 붙인다.
부치다는 보내거나 맡기고, 일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땅을 경작하는 뜻으로 쓰인다. 따라서 편지를 부치고, 힘에 부치며, 땅을 부쳐 먹는다.
숙식은 남의 집에서 먹고 자는 일을 뜻하므로 ‘숙식을 부치다’라고 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ㄷ·ㅂ을 잘못 쓰인 것으로 묶었으나, ㄷ '말을 붙여'와 ㅂ '정을 붙였던'은 모두 맞다. ㄱ의 '숙식을 붙인다는'만 '숙식을 부친다는'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ㄱ '숙식을 붙인다는'은 '숙식을 부친다는'으로, ㄹ '우표를 부치고'는 '우표를 붙이고'로, ㅁ '붙어 먹을 땅'은 '부쳐 먹을 땅'으로 고쳐야 한다. 세 어휘만 잘못 쓰였으므로 옳다.

③ X: ㄴ '힘에 부치는'은 일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맞고, ㄷ '말을 붙여'도 말을 걸다의 뜻으로 맞다. 잘못된 ㅁ은 빠지고 맞는 ㄴ·ㄷ이 들어갔다. ㄴ과 ㄷ은 그대로 쓴다.

④ X: ㄴ '힘에 부치는'과 ㅂ '정을 붙였던'은 모두 맞다. 잘못 쓰인 ㄱ·ㅁ이 빠졌다. ㄴ과 ㅂ은 각각 '힘에 부치다', '정을 붙이다'로 그대로 쓴다.

오답 포인트

'부치다'가 편지를 보내는 뜻으로 쓰인다는 점 때문에 '우표를 부치다'로 잘못 연결하기 쉽다. 보내는 것은 편지이고, 우표는 봉투에 붙이는 것이다. 또 '힘에 부치다'와 '땅을 부쳐 먹다'처럼 부치다가 쓰이는 관용 표현도 함께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무엇을 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물건을 다른 것에 닿게 하면 '붙이다', 편지 등을 보내거나 힘이 달리거나 땅을 경작하면 '부치다'로 판단한다. '숙식'은 남의 집에서 먹고 자는 일이므로 '숙식을 부치다'로 기억한다.

암기 포인트

우표·말·정은 붙이다, 편지·힘·땅·숙식은 부치다.

NoteBase

문 4. 밑줄 친 부분의 주된 설명 방식은?

보살은 자기 자신이 불경의 체험 내용인 보리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일체의 타인에게도 그의 진리를 체득시키고자 정진하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나한과 같은 자리(自利)를 위하여 보리를 구하는 자가 아니고 어디까지든지 이타(利他)를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나한이 개인적 자각인 데 대하여 보살은 사회적 자각에 입각한 것이니, 나한은 언제든지 개인 본위이고 개인 중심주의인 데 대하여 보살은 사회 본위이고 사회 중심주의인 것이다.

① 유추
② 묘사
③ 예시
④ 대조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두 대상의 서로 다른 성격을 짝지어 드러내는 설명 방식을 묻는다.

핵심 개념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에서 서로 다른 점을 나란히 제시하여 특징을 분명하게 하는 설명 방식이다. 유추는 서로 비슷한 두 대상을 견주어 한 대상의 성질을 다른 대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고, 묘사는 대상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그려 내는 방식이며, 예시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유추는 성질이 비슷한 두 대상을 견주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 글은 나한과 보살의 공통점이 아니라 자각의 성격과 지향점의 차이를 밝힌다. 틀린 표현은 '유추'이며, 올바르게는 '대조'이다.
② X: 묘사는 대상의 모양·색채·움직임 등을 감각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이 글에는 그러한 장면 묘사가 없고, 나한과 보살의 성격을 개념적으로 비교한다. 틀린 표현은 '묘사'이며, 올바르게는 '대조'이다.
③ X: 예시는 일반적 내용을 뒷받침하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방식이다. 나한과 보살은 사례로 열거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특징을 대비하는 두 대상이다. 틀린 표현은 '예시'이며, 올바르게는 '대조'이다.
④ O: '나한은 개인적 자각, 보살은 사회적 자각', '나한은 개인 본위, 보살은 사회 본위'처럼 두 대상을 대응시켜 차이를 드러내므로 대조가 주된 설명 방식이다.

오답 포인트

나한과 보살이라는 두 대상이 제시되었다고 해서 예시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글의 중심은 두 대상의 구체적 사례 제시가 아니라 '개인적·사회적', '개인 본위·사회 본위'라는 반대되는 속성의 대비에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두 대상이 반복해서 함께 제시되고 각각에 반대되는 성질이 대응되면 대조인지 확인한다. 공통된 성질을 바탕으로 다른 대상을 이해시키면 유추, 구체적 사례를 들면 예시, 감각적 모습을 그려 내면 묘사이다.

암기 포인트

차이점을 나란히 밝히면 대조, 비슷한 점으로 이해시키면 유추이다.

NoteBase

문 5. 다음 글에서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개인의 알 권리를 충족하거나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생각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도덕적 응징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신상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범법 행위가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적 처벌이 어렵다면 도덕적으로 응징해서라도 죄를 물어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요구가,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 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 수준의 과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사회적 비난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사건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개인 신상 정보부터 무분별하게 유출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그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인격 훼손은 물론, 개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할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훼손하는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아닌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① 정보 공유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② 정보 유출로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경우는 없다.
③ 공유된 정보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정보 공유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글의 일부 내용이 아니라 글쓴이가 마지막에 결론으로 강조한 주장을 가려 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글의 결론은 앞부분의 긍정적 기능이나 문제 발생 원인보다, 마지막 문단의 최종 주장에 놓인다. 이 글은 SNS의 정보 공유가 사회 정의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공유할 때 이를 막아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SNS를 통한 정보 공유가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첫 문단에서 인정한 긍정적 기능이다. 그러나 글 전체의 결론은 아니다. 틀린 표현 → 글의 결론은 정보 공유의 가능성 자체가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② X: 글은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가 사생활 침해·인격 훼손·범죄 악용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틀린 표현인 '훼손되는 경우는 없다' → 공익을 내세운 정보 유출도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

③ X: 사실 여부 확인은 무분별한 유출을 막기 위한 중간의 주의 사항이다. 이 선지는 개인정보·인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최종 결론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 틀린 표현 → 공유 전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훼손하는 정보를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④ O: 글 마지막 문단에서 정보 공유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훼손하는 정보의 유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직접 결론짓는다.

오답 포인트

①은 글의 첫머리에 나온 내용이고, ③은 문제의 원인과 관련된 주의 사항이다. '결론적으로'라는 물음에서는 마지막에 제시된 최종 당위, 즉 개인정보와 인권 보호를 찾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장 글의 결론을 묻는 경우에는 앞부분의 인정·배경·사례와 마지막 문단의 접속 표현 '따라서' 뒤에 놓인 주장 중 후자를 우선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인정한 장점은 배경, '따라서' 뒤의 당위는 결론이다.

NoteBase

문 6.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한국 전통 건축의 특징 중 하나는 여러 건물들이 일정한 축이나 질서에 의해 배치되고, 그 중간 부분에 크고 작은 마당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당으로부터의 시선이 마루를 거쳐 방으로 연결되고, 다시 창호를 통해 저 멀리의 들과 강과 산으로 이어진다. 한국 전통 건축은 결코 자연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고 열려진 건축 공간을 통해 정원처럼 즐기는 방식을 취한다. 그것은 자연을 정복하려는 중국 전통 건축이나, 자연을 소유하려는 일본 전통 건축의 특징과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다.

한국 전통 건축물이 왜소하거나 초라해 보인다고 말하는 경우는 대개 외형적인 크기와 넓이 그리고 장식적 요소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한국 전통 건축은 '겸손의 건축'이다. 자연과 인간은 하나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자연을 침해하면서까지 건축물을 두드러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전통 건축의 기본 철학이다. 더 나아가 건축물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인간이 잠시 그 품에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것이 옳다는 철학도 한국 전통 건축에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부터 산과 들을 제압하는 거대한 건축물을 짓지 않으려고 했으며, 그 형태 또한 인위적인 직선을 배제하고 자연계의 곡선을 따르는 것을 즐겼다.

① 한국의 전통 가옥은 방의 창문을 통해 자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② 한국 전통 건축은 자연을 소유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면에서 일본 전통 건축과 다르다.

③ 한국 전통 건축에서 자연을 압도하는 건축을 추구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을 자연의 일부로 여긴 까닭이다.

④ 한국 전통 건축의 조형미를 직선보다 곡선에서 찾은 것은 한국 전통 건축의 철학을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국 전통 건축이 자연과 맺는 관계와 그 조형 원리를 지문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국 전통 건축은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고, 건축물을 자연을 지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연 속에 잠시 놓인 일부로 여기는 건축이다. 결정 차이축은 자연을 대하는 태도이다. 한국 전통 건축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며 자연스러운 곡선을 따른다. 중국 전통 건축은 자연을 정복하고, 일본 전통 건축은 자연을 소유하려는 태도와 대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지문은 마당에서의 시선이 마루와 방을 거쳐 창호를 통해 들·강·산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방의 창문을 통해 자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O. 지문은 한국 전통 건축이 자연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자연을 소유하려는 일본 전통 건축과 구별된다고 하였다.

③ O. 건축물도 자연의 일부이며 인간이 잠시 그 품에 머문다고 보는 철학 때문에, 산과 들을 제압하는 거대한 건축물을 짓지 않으려 했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한국 전통 건축의 철학을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철학에 따라 인위적인 직선을 배제하고 자연계의 곡선을 따르는 것은 한국 전통 건축 철학을 반영한 결과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곡선을 따른다'는 사실 자체는 지문과 같지만, 그것을 철학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바꾸어 놓았다. 지문에서는 곡선을 따르는 태도를 한국 전통 건축의 기본 철학이 반영된 모습으로 제시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통 건축 비교 지문에서는 자연을 정복·소유·공존 중 어떤 대상으로 보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이어서 건축의 크기, 배치, 시선의 연결, 직선·곡선 같은 조형 특징이 그 자연관과 일치하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한국 전통 건축은 자연을 소유하거나 정복하지 않고, 자연 속에 겸손하게 놓이며 곡선을 따른다.

NoteBase

문 7. '효녀 지은'의 행위를 나타내는 사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효녀 지은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홀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아침과 저녁으로 문안드리며 곁을 떠나지 않았다.
— 『삼국사기』 열전 '효녀 지은'에서 —

① 肝膽相照
② 磨斧爲針
③ 昏定晨省
④ 孤掌難鳴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부모를 정성껏 섬기는 효행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의 뜻을 묻는다.

핵심 개념

혼정신성(昏定晨省)은 저녁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살피고 아침에는 안부를 여쭈며 부모를 공경하는 효행이다. 간담상조는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돕는 관계, 마부위침은 큰 노력으로 어려운 일을 이룸, 고장난명은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간담상조(肝膽相照)는 간과 쓸개를 서로 비춘다는 뜻으로, 서로 진심을 털어놓고 돕는 친밀한 관계를 이른다. 틀린 선택: '간담상조' → 부모를 아침저녁으로 보살피는 효행은 '혼정신성'이다.
② X. 마부위침(磨斧爲針)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음을 이른다. 틀린 선택: '마부위침' → 제시문의 효행은 '혼정신성'이다.
③ O. 혼정신성(昏定晨省)은 저녁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살피고 아침에는 문안하는 효행이다. 아침과 저녁으로 문안하고 곁을 떠나지 않은 지은의 행동과 맞는다.
④ X. 고장난명(孤掌難鳴)은 외손바닥 하나로는 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뜻으로, 혼자서는 일을 이루거나 다툼을 만들기 어려움을 이른다. 틀린 선택: '고장난명' → 부모를 공경하여 돌보는 행동은 '혼정신성'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노력', ①은 '친밀한 인간관계', ④는 '혼자서는 어려움'에 관한 말이다. 지문에 드러난 핵심 행동은 아침저녁으로 부모를 문안하고 보살피는 효행이므로 ③을 고른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자성어 문제에서는 지문의 핵심 행동을 먼저 한 단어로 바꾼다. 부모를 섬기고 문안함이면 효행, 어려움을 이겨낸 노력이라면 마부위침, 진심을 나누는 관계라면 간담상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혼정신성: 저녁에는 잠자리, 아침에는 문안이라는 부모 공경의 효행이다.

NoteBase

문 8. 높임 표현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장님, 넥타이가 잘 어울리시네요.

② 어머님, 아비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③ 선생님, 어머니께서 위임장을 주셨습니다.

④ 시장님, 저에게 여쭤 보셨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체 높임, 간접 높임, 겸양 표현이 각각 누구를 높이거나 낮추는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체 높임은 높여야 할 사람이 문장의 주어일 때 '-시-', '께서' 등을 쓰는 표현이다. 간접 높임은 높여야 할 사람의 신체·소유물·관련 대상을 높여 그 사람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표현이다. 겸양 표현은 말하는 이가 자신이나 자기 쪽을 낮추어 듣는 이를 높이는 표현이며, '여쭙다'는 말하는 이가 상대에게 묻는 경우에 쓴다.

선지별 해설

① O: '넥타이'는 부장님의 소유물이므로 '어울리시네요'의 '-시-'로 부장님을 간접적으로 높일 수 있다.
② O: '아비'는 아이의 아버지나 남편을 낮추어 이르는 말로, '어머님'이라는 높임의 대상 앞에서 자기 쪽 사람을 낮춘 표현이다.
③ O: '어머니께서'와 '주셨습니다'는 위임장을 준 어머니를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④ X: '여쭤 보셨던'이 부적절하다. '여쭙다'는 말하는 이가 상대에게 묻는 겸양어이므로 시장님을 주어로 하여 말할 수 없다. '시장님, 저에게 물어보셨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시장님을 높이려는 뜻에서 '여쭙다'를 쓴 것으로 보이지만, 높임의 대상이 시장님이라는 이유만으로 겸양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가 누구에게 묻는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와 '께서'는 높일 사람이 주어인지 확인하고, 소유물이나 신체가 주어이면 간접 높임인지 확인한다.
'여쭙다·드리다' 같은 겸양어는 말하는 이 또는 자기 쪽 사람이 높일 대상에게 하는 행동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여쭙다'는 내가 높일 분께 묻는 말이고, 윗사람이 나에게 묻는 말은 '물어보시다'이다.

NoteBase

문 9.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은 항상 열 시쯤 돌아온다.

② 나는 사과를 천 원어치 샀다.

③ 그녀는 스무 살남짓 되어 보였다.

④ 그 일은 이십 세기경 일어난 일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는 말의 띄어쓰기와 단위 명사의 띄어쓰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쯤', '어치', '경'은 앞말에 붙여 쓰는 말이다. 반면 '남짓'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서 '조금 넘음'의 뜻을 더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단위 명사 '시', '원', '살', '세기'는 수사와 띄어 쓴다.

선지별 해설

① O: '시'는 단위 명사이므로 '열 시'로 띄어 쓰고, '쯤'은 앞말에 붙여 '시쯤'으로 쓴다. 따라서 '열 시쯤'이 맞다.

② O: '원'은 단위 명사이므로 '천 원'으로 띄어 쓰며, '어치'는 앞말에 붙여 '원어치'로 쓴다. 따라서 '천 원어치'가 맞다.

③ X: 틀린 표현은 '살남짓'이다. '남짓'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올바르게는 '스무 살 남짓'이다.

④ O: '세기'는 단위 명사이므로 '이십 세기'로 띄어 쓰고, '경'은 앞말에 붙여 '세기경'으로 쓴다. 따라서 '이십 세기경'이 맞다.

오답 포인트

③의 '남짓'을 '쯤'이나 '경'처럼 앞말에 붙여 쓰기 쉽다. 그러나 '남짓'은 '한 달 남짓', '열 명 남짓'처럼 수량 표현 뒤에서 띄어 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수사와 단위 명사는 띄어 쓴다. 그다음 수량 뒤의 말이 '쯤·어치·경'이면 붙여 쓰고, '남짓'이면 띄어 쓰는지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열 시쯤·천 원어치·이십 세기경’은 붙이고, ‘스무 살 남짓’의 ‘남짓’은 띄어 쓴다.

NoteBase

문 10.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公無渡河
公竟渡河
墮河而死
當奈公何
— 백수광부의 처, 「공무도하가」 —

(가) 公無渡河
公竟渡河
墮河而死
當奈公何
— 백수광부의 처, 「공무도하가」 —

(나)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너븐디 몰라셔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ᄇᆡ 내여 아즐가 ᄇᆡ 내여 노흔다 샤공아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네 가시 아즐가 네 가시 럼난디 몰라셔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널 ᄇᆡ에 아즐가 널 ᄇᆡ에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건너편 고즐여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ᄇᆡ 타들면 아즐가 ᄇᆡ 타들면 것고리이다 나ᄂᆞᆫ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 작자 미상, 「서경별곡」에서 —

① (가)의 화자는 임과의 동행을, (나)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선택한다.
② (가)의 '河'와 (나)의 '강'은 모두, 임과 나의 재회를 돕는 매개로 설정되었다.
③ (가), (나)의 화자 모두, 벌어질 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이 희극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무도하가」와 「서경별곡」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와 '강'의 역할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가)의 화자는 임이 강을 건너면 죽게 될 일을 걱정하며 만류하는 인물이다. '공무도하(公無渡河)'와 '공경도하(公竟渡河)' 뒤의 '타하이사(墮河而死)'는 임이 결국 강에 빠져 죽었음을 보여 준다.
(나)의 화자는 임을 배에 태워 대동강 건너편으로 떠나보내는 상황에 놓여 있다. 여기서 반복되는 '비'는 비(雨)가 아니라 '배(舟)'를 가리키는 옛말 표기이며, 화자는 임을 건네주는 사공을 원망하고, 임이 강을 건너간 뒤 건너편의 '꽃(다른 여인)'을 꺾을까 염려한다. 즉 이별의 안타까움과 임의 변심에 대한 질투·불안을 드러낸다.
(가)의 강은 임의 죽음과 상실을 낳는 공간이고, (나)의 강은 임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공간이자 임의 변심을 우려하게 하는 장애물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가)의 화자는 임에게 강을 건너지 말라고 만류할 뿐, 임과 동행을 선택하지 않는다. (나)의 화자도 이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임을 떠나보내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임의 변심을 염려한다. '임과의 동행, 임과의 이별을 선택한다' → (가)는 임의 도강을 만류하고, (나)는 이별을 원치 않으면서 임의 부정을 걱정한다.
② X: (가)의 '하(河)'는 임이 빠져 죽는 비극의 원인이 되는 강이다. (나)의 '강'도 임과 화자를 재회시키는 매개가 아니라 임을 떠나보내 이별하게 하는 공간이다. '재회를 돕는 매개' → (가)는 상실의 공간, (나)는 이별의 공간이다.
③ O: (가)는 임이 강을 건너면 죽을 것을 염려하여 '공무도하'라고 만류하고, (나)는 임이 강을 건너간 뒤 건너편의 꽃을 꺾을까(변심할까) 염려한다. 두 화자 모두 앞으로 벌어질 상황(임의 죽음, 임의 변심)에 대한 염려를 드러낸다.
④ X: 두 작품 모두 화자의 상대방이 실제로 반응하는 장면이 제시되지 않으며, 희극적 분위기도 나타나지 않는다.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 → 화자가 임을 만류하거나 사공을 원망하며 자신의 정서를 토로할 뿐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염려'와 ①의 '이별 선택'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의 화자는 이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임을 배에 태워 보내는 사공을 원망하고 임이 건너편에서 다른 꽃을 꺾을까(변심할까) 염려한다. 또한 반복되는 '비'를 비(雨)로 오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 '비'는 '배(舟)'를 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전 시가 비교에서는 반복되는 자연물 자체보다 그 자연물이 사건에서 하는 역할을 확인한다. 강이 죽음의 원인인지 이별을 낳는 공간인지, 그리고 화자가 드러내는 정서가 임의 죽음에 대한 걱정인지 임의 변심에 대한 염려인지를 구분해 선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공무도하가의 강은 '도강-죽음', 서경별곡의 대동강은 '임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공간이자 임의 변심을 염려하게 하는 장애물'이다.

NoteBase

문 11. '곰치'의 심리로 미루어 ㉠ ~ ㉤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부 '곰치'가 선주 '임제순'에게 진 빚 때문에 모처럼 찾아온 만선(滿船)의 기회를 놓칠까 싶어 갈등하는 상황이다.]

임제순: (발끈해서) 아니면 으짤 참이였? 이자를 생각해 봐! 놀랠 것이 뭇이여?
연철: (비꼬는 투로) 놀랠 것 하나도 없지라우! 이렇게 될 줄 뻔히 알었지라우! (불같은 한숨)
임제순: 뭇이라고? 저놈이 어따 대고 비양질이여?
곰치: (㉠) 알았음녀..... (연철에게) 아무 소리 말어! 다들 입을 봉해!
성삼: 곰치! 입을 봉할 때가 따로 있어! (오기스런 안간힘)
곰치: (㉡) 시끄러웠!
임제순: 곰치!
곰치: (㉢) 말씀하시게라우.....
임제순: ……자네 섭섭할는지 모르겠네만은…… (강경하게) 남은 이만 원 청산할 때까지 내일부터 배를 묶겠네! 묶겄어!
성삼·연철·도삼: 배를 묶다니?
구포댁: (펄쩍 뛰며) 왔따! 믄 말씀이싱게라우? 아니 해필이면 이럴 때 배를 묶어라우? 예에?
임제순: (단호하게) 나는 두말 않는 사람이여!
곰치: (㉣) 영감님! 배만은! 배만은!

— 천승세, 『만선』에서 —

① ㉠: 체념 조로

② ㉡: 비아냥거리는 투로

③ ㉢: 지친 듯

④ ㉣: 애걸 조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사의 내용과 앞뒤 상황을 바탕으로 인물의 말투와 심리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체념조는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며 단념하는 말투이고, 비아냥거리는 투로는 상대를 낮추어 조롱하는 말투이다. 지친 듯한 말투는 고단함과 기운 빠진 상태를 드러내며, 애걸조는 간절히 부탁하는 말투이다. 이 대목에서 곰치는 빚과 조업 중단의 압박 속에서 갈등하고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ㄱ의 '알았음네……'에는 임재순의 말에 마지못해 응하며 갈등을 가라앉히려는 체념적 태도가 드러난다.

② X: ㄴ의 '시끄러웠!'은 성삼의 끼어듦에 짜증과 신경질을 내는 말이다. 상대를 조롱하는 말이 아니므로 '비아냥거리는 투로'라는 표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짜증 내거나 신경질적인 투로'이다.

③ O: ㄷ의 '말씀하시게라우……'에는 임재순이 결국 배를 묶겠다고 하자 곰치가 기운 빠지고 지친 상태에서 그의 말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난다.

④ O: ㄹ의 '영감님! 배만은! 배만은!'은 배를 묶지 말아 달라고 거듭 간절히 호소하는 말이므로 애걸조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시끄러웠!'이라는 감탄형 표현만 보고 강한 말투를 비아냥으로 잘못 판단하기 쉽다. 이 말은 연철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의 말을 끊으며 짜증을 드러낸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말투는 한 문장만 떼어 보지 않고, 누구에게 한 말인지와 직전 상황을 함께 확인한다. 상대를 낮추어 웃음거리로 만들면 비아냥이고, 끼어드는 말을 막으며 감정을 터뜨리면 짜증이나 신경질의 말투이다.

암기 포인트

조롱하면 비아냥, 말을 끊으며 화내면 신경질, 간절히 되풀이해 부탁하면 애걸조이다.

NoteBase

문 12.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언어의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언어 정책이 (㉠)되었다. 러시아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당시 러시아 사회는 칭기즈 칸의 침략 후 문장어와 방언 사이의 (㉡)가 컸다. 표트르 대제는 불가리아 문장어를 버리고 모스크바어를 (㉢)으로 한 러시아어 표준어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다. 이때부터 푸시킨을 비롯한 국민적 작가에 의해 러시아의 문예어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서양에서 봉건제가 붕괴되고 민주 의식이 (㉣)되면서 표준어가 결정되고 국민 문예가 성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 나라의 표준어 형성, 나아가 국어의 통합은 이렇게 문예 작품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① ㉠: 시행, ㉡: 격차, ㉢: 기반, ㉣: 고양

② ㉠: 시행, ㉡: 편차, ㉢: 기반, ㉣: 지양

③ ㉠: 중단, ㉡: 격차, ㉢: 방식, ㉣: 지양

④ ㉠: 중단, ㉡: 편차, ㉢: 방식, ㉣: 고양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맥에 알맞은 어휘의 의미와 결합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행은 정책이나 제도를 실제로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격차는 둘 사이에 벌어진 차이나 간격을 뜻하고, 편차는 기준값이나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를 뜻한다. 기반은 어떤 일의 바탕이 되는 토대이며, 고양은 의식·정신·기분 따위를 높이는 것을 뜻한다. 지양은 부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피하고 없애려 하는 것을 뜻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언어 정책은 실제로 실시하므로 '시행되었다'가 알맞다. 문장어와 방언 사이에는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는 뜻이므로 '격차'가 적절하다. 모스크바어를 표준어의 바탕으로 삼았으므로 '기반으로 한'이 자연스럽다. 민주 의식은 높아졌으므로 '고양되면서'가 알맞다.

② X: ㄴ의 '편차'와 ㄹ의 '지양'이 틀리다. 편차는 기준이나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정도이므로, 문장어와 방언 사이의 차이는 '격차'라고 해야 한다. 또한 민주 의식은 피하는 대상이 아니라 높아지는 대상이므로 '지양되면서'가 아니라 '고양되면서'라고 해야 한다.

③ X: ㄱ의 '중단', ㄷ의 '방식', ㄹ의 '지양'이 틀리다. 정책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실시된 것이므로 '중단되었다'가 아니라 '시행되었다'이다. 모스크바어는 표준어의 토대이므로 '방식으로 한'이 아니라 '기반으로 한'이다. 민주 의식은 높아지므로 '지양'이 아니라 '고양'이다.

④ X: ㄱ의 '중단', ㄴ의 '편차', ㄷ의 '방식'이 틀리다. 언어 정책은 '시행'되고, 문장어와 방언 사이에는 '격차'가 크며, 모스크바어를 '기반으로 한' 표준어 정책이 실시되었다. ㄹ의 '고양'만 문맥에 맞는다.

오답 포인트

'고양'과 '지양'은 모두 한자어라 혼동하기 쉽다. 의식·정신·기분을 높이는 문맥에는 고양을, 피하거나 없애려는 대상에는 지양을 쓴다. 또한 '격차'는 둘 사이의 차이, '편차'는 기준값으로부터의 벗어남이라는 차이가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앞뒤의 서술어와 목적어가 자연스럽게 결합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정책에는 '시행', 차이에는 '격차', 어떤 것의 바탕에는 '기반', 의식의 상승에는 '고양'이 결합한다.

암기 포인트

정책은 시행, 둘 사이의 차이는 격차, 바탕은 기반, 의식의 상승은 고양이다.

NoteBase

문 1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별 헤는 밤
㉡ - 울산과 부산서 11·12일 별 축제 열려 -
㉢ 11일과 12일 저녁 울산과 부산에서 가을밤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축제가 잇따라 펼쳐진다.
㉣ 울산광역시와 한국천문연구원은 11일 오후 5시부터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울산전파천문대에서 '울산전파천문대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별 축제'를 연다. 이 축제는 울산광역시 생활과학교실과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가 주관해 2010년부터 해마다 여는, 청소년을 위한 과학 문화 축제이다.
… (하략)
— ○○신문, 20○○. ○○. ○○. —

<보기>
신문 기사에서 '전문'은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부분으로, 대체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사 내용의 뼈대를 제공한다. 이는 본문을 요약하는 전문, 배경을 설명하는 전문, 여론을 환기하는 전문, 결과를 제시하는 전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① ㉠: 기사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전문이다.
② ㉡: 사건의 결과와 함께 원인을 제시한다.
③ ㉢: 육하원칙의 몇몇 요소로 기사의 요지를 제시한다.
④ ㉣: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는 전문에 해당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신문 기사의 제목·부제·전문·본문의 기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목은 기사의 내용을 압축하여 드러내는 글머리이고, 부제는 제목을 보충하여 핵심 정보를 덧붙이는 짧은 문장이다. 전문은 본문 앞에서 육하원칙의 핵심 요소로 기사의 요지를 요약하는 부분이며, 본문은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배경을 자세히 설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별 헤는 밤'은 기사의 제목이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전문은 본문 앞의 ㉢과 같은 부분이다.
② X. ㉡은 '울산과 부산', '11·12일', '별 축제'라는 핵심 정보를 덧붙인 부제이다. 사건의 결과와 원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제목을 보충한 것이다.
③ O. ㉢은 '언제(11일과 12일 저녁)', '어디서(울산과 부산에서)', '무엇을(가을밤 별자리를 관찰하는 축제)'이 열리는지를 밝혀 기사 요지를 요약한다. 따라서 육하원칙의 몇몇 요소로 기사의 요지를 제시한 전문이다.
④ X. ㉣은 주관 기관, 개최 장소, 축제의 연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본문이다.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는 전문이 아니라 기사의 배경과 세부 내용을 보충하는 부분이다.

오답 포인트

㉣도 기사 앞부분에 있어 전문처럼 보일 수 있으나, ㉢에서 이미 행사 시기·장소·내용을 요약했다. ㉣은 그 뒤에 주관 기관과 연혁을 덧붙이므로 본문에 해당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사의 첫머리에서 사건의 핵심을 짧게 요약하면 전문이고, 그 뒤에 주최·경위·배경을 구체화하면 본문이다. 제목 아래에서 핵심 정보를 한 줄로 보충하면 부제이다.

암기 포인트

제목은 글머리, 부제는 보충, 전문은 요약, 본문은 상세 설명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 이성부, 「봄」 —

① 특정한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② 단정적 어조로, 기대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미래의 절망적인 상황을 단언하는 화자의 태도가 시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④ 특정 대상을 인격화하여 대상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적 대상인 '너'에 대한 화자의 기다림과 확신, 그리고 이를 드러내는 반복·인격화 표현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반복은 같은 말이나 구조를 거듭하여 의미와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인격화는 사람이 아닌 대상에 사람의 행동·성질을 부여하여 사람처럼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시의 '너'는 더디게라도 '마침내 올 것'으로 확신되는 대상으로, 화자는 그 대상을 간절히 기다린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기다리지 않아도', '기다림마저', '더디게 더디게'처럼 특정 시어와 구조를 반복하여 기다림의 정서와 대상의 더딘 도래를 강조한다.
② O: '너는 온다', '마침내 올 것이 온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여, 기다리는 대상이 결국 온다는 화자의 믿음을 드러낸다.
③ X: 틀린 표현은 '미래의 절망적인 상황을 단언하는'이다. 화자는 미래를 절망적으로 단언하지 않으며, '마침내 올 것'이라며 대상의 도래를 확신한다. 시상의 중심은 절망이 아니라 더디게 오는 대상을 기다리는 마음이다.
④ O: '너는 온다',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처럼 '너'를 사람처럼 오고 눈을 비비는 존재로 나타내어, 대상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한다.

오답 포인트

'더디게'와 '소리는 굳어'에서 화자의 답답함이 드러나지만, 이것을 미래에 대한 '절망적 단언'으로 바꾸면 안 된다. '마침내 올 것'이라는 표현이 화자의 확신을 분명히 보여 준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의 정서를 판단할 때에는 일부의 부정적·답답한 표현만 보지 않고, 결말이나 반복되는 단정 표현이 대상의 도래를 부정하는지 확신하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더디게' 와도 '마침내' 온다: 답답함 속에서도 기다림과 확신이 중심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 변화의 굽이들 속에서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또한 다양하게 바뀌었다. 어느 세기에는 종교적 믿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도 했고, 어느 때는 이성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또 어느 시점에서는 전 인류가 기계 문명을 근간으로 한 산업화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리고 21세기가 되었다. 이 세기는 첨단 과학과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진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변화된 모습이 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의 배경에는 늘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가로놓여 있었다.

과학 기술의 진보와 이에 발맞춘 눈부신 문명의 진전 과정에서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우선하였다. 과연 인간이 욕망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았다면 이 문명 세계의 많은 것들을 창조하고 혁신할 수 있었을까?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 욕망이 없었다면 비행기는 발명되지 못했을 것이며, 좀 더 빠른 이동 수단을 원하지 않았다면 자동차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껏 상상력은 인류 문명을 가동시켜 온 원동력이었으며 현재 또한 그러하다.

그런 가운데 21세기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신과학들은 이러한 상상력의 위상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사람들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공상 수준에 그쳤던 일들이 실로 구현되는 상황이 펼쳐지곤 한다. 3D, 아바타, 사이보그, 가상현실, 인공 생명, 유전 공학, 나노 공학 등 21세기 최첨단 과학 기술에 힘입어 상상력의 지평이 넓어졌다. 과거 시대들이 무엇인가를 상상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는 기술을 개발하는 시간들이었다면, 21세기는 상상하는 것을 곧 이루어 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① 현재의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불변의 절대적 가치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② 인류 역사의 변화 과정에서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끼친 영향이 크다.

③ 인류 역사의 변화 중에도 인간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현된 세계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④ 21세기에 접어들어 과학 기술과 상상력의 위상 관계에 변화가 일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류 문명의 변화가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 그리고 과학 기술의 발전과 맺는 관계를 추론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문은 시대마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문명의 모습도 계속 변해 왔다고 본다.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은 문명 변화의 원동력이며, 21세기에는 첨단 과학 기술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범위가 넓어진다. 과거에는 상상한 것을 만들 기술을 개발했다면, 21세기에는 상상한 것을 곧 실현할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간다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시대마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양하게 바뀌었다고 하였으므로, 현재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O
지문은 지속적인 변화의 배경에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있었고, 이것들이 문명 진전 과정에서 우선하였다고 설명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변함이 없었다'이다. 지문은 인류 역사에서 세계관·가치관과 문명의 모습이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고 하므로, 인간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현된 세계의 모습도 변화해 왔다고 보아야 한다.

④ O
과거에는 상상한 것을 만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21세기에는 디지털 기술과 신과학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여긴 상상까지 구현된다. 따라서 과학 기술과 상상력의 관계 및 상상력의 위상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오답 포인트

③은 상상력이 문명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내용을 '상상력으로 실현된 세계는 변하지 않는다'로 바꾸어 놓았다. 상상력의 지속성이나 중요성과 문명 세계의 불변성은 전혀 다른 내용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추론 문제에서는 지문의 변화·지속·확대 같은 방향어를 먼저 확인한다. 지문이 '끊임없이 변화', '지평이 넓어짐'을 말할 때 '변함이 없다'와 같은 불변 표현은 지문 내용과 충돌하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열망과 상상력은 문명 변화의 원동력이고, 21세기 기술은 상상의 실현 범위를 넓힌다.

NoteBase

문 16. ㉠~㉣의 한자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태어날 때 자기의 얼굴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얼굴은 부모님한테서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얼굴은 재주나 체질과 마찬가지로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누구나 맑고 아름다운 얼굴을 갖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얼굴을 바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톨스토이의 ㉡자서전적 작품을 읽어 보면, 젊었을 때 자기의 코가 넓적하고 보기 흉한 것을 무척 비관해서 ㉢염세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얼굴의 근본 바탕은 세상에 태어날 때 운명적으로 결정되지만, ㉣성실한 노력에 따라서는 내면을 드러내는 인상이 바뀔 수 있다.

① ㉠: 殞命, ㉡: 自書傳, ㉢: 厭世的, ㉣: 成實
② ㉠: 運命, ㉡: 自書傳, ㉢: 鹽稅的, ㉣: 成實
③ ㉠: 殞命, ㉡: 自叙傳, ㉢: 鹽稅的, ㉣: 誠實
④ ㉠: 運命, ㉡: 自叙傳, ㉢: 厭世的, ㉣: 誠實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맥에 맞는 한자어의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한자어는 소리만 같아도 뜻과 글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앞뒤 문맥의 뜻을 먼저 확인한다.

핵심 개념

운명적(運命的)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듯한 운명과 관련된다는 뜻이다. 같은 소리로 읽히는 殞命은 '殞(죽을 운)'을 써서 '목숨이 끊어짐(죽음)'을 뜻하므로, 태어날 때 정해진 운명이라는 문맥에는 맞지 않는다. 자서전(自敍傳)은 자신의 생애를 스스로 서술한 글이며, '서술할 서'는 敍이다. 염세적(厭世的)은 세상을 싫어하거나 인생을 비관하는 태도이다. 성실(誠實)은 참되고 정성스러우며 부지런함을 뜻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의 '殞命'은 '목숨이 끊어짐(죽음)'을 뜻하는 殞(죽을 운)을 쓴 표기로, 소리는 運命과 같지만 태어날 때 정해진 운명이라는 문맥과 맞지 않으므로 '運命'으로 고쳐야 한다. ㄴ의 '自書傳'도 자신의 삶을 서술한 글이라는 뜻의 '自敍傳'으로, ㄹ의 '成實'도 참되고 정성스러움을 뜻하는 '誠實'로 고쳐야 한다. ㄷ의 '厭世的'만 올바른 표기이다.
② X: ㄱ의 運命은 맞지만, ㄴ의 '自書傳'은 '自敍傳'으로, ㄷ의 '鹽稅的'은 '厭世的'으로, ㄹ의 '成實'은 '誠實'로 고쳐야 한다.
③ X: ㄴ의 自敍傳과 ㄹ의 誠實은 맞다. 그러나 ㄱ의 '殞命'은 '運命'으로, ㄷ의 '鹽稅的'은 '厭世的'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運命的, 自敍傳, 厭世的, 誠實은 각각 지문의 '태어날 때 정해짐', '자신의 삶을 쓴 글', '세상을 비관함', '부지런하고 참됨'의 뜻에 맞는 한자 표기이다.

오답 포인트

運命(운명, 태어날 때 정해진 운명)과 殞命(운명, 목숨이 끊어짐·죽음)은 소리가 같지만 뜻이 전혀 다르므로 문맥으로 구별해야 한다. 또 '염세'의 厭(싫어할 염)과 '소금'의 鹽(소금 염)은 음이나 모양이 비슷하게 느껴져 혼동하기 쉽다. 특히 ②와 ③은 일부 표기만 맞게 제시하여 전체 조합을 확인하지 않으면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 표기 문제에서는 먼저 우리말 문맥으로 뜻을 확정한 뒤, 각 음절의 한자 뜻을 대조한다. '세상을 싫어함'이면 厭世, '소금세'이면 鹽稅처럼 의미가 전혀 다른 한자를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운명은 運命, 자서전은 自敍傳, 염세는 厭世, 성실은 誠實이다. 같은 소리의 殞命(죽음)과 혼동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7. 다음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처럼 동리자가 수절을 잘하는 부인이라 했는데 실은 슬하의 다섯 아들이 저마다 성(姓)을 달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다섯 놈의 아들들이 서로 이르기를,
“강 건넛마을에서 닭이 울고 강 저편 하늘에 샛별이 반짝이는데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도 그리 북곽 선생의 목청을 닮았을까.”
하고, 다섯 놈이 차례로 문틈을 들여다보았다.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온데 오늘 밤은 선생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
라고 간청하매, 북곽 선생은 옷깃을 바로잡고 점잖게 앉아서 시(詩)를 읊는 것이 아닌가.
“원앙새는 병풍에 그려 있고 / 반딧불이 흐르는데 잠 못 이루어 / 저기 저 가마솥 세발솥은 /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나.’ 흥야(興也)라.”
다섯 놈들이 서로 소곤대기를
“북곽 선생과 같은 점잖은 어른이 과부의 방에 들어올 리가 있겠나. 우리 고을의 성문이 무너진 데에 여우가 사는 굴이 있다더라. 여우란 놈은 천 년을 묵으면 사람 모양으로 둔갑할 수가 있다더라. 저건 틀림없이 그 여우란 놈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이다.”
하고 함께 의논했다.
“들으니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을 신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고,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남에게 이쁘게 보일 수 있다더라. 우리 저 여우를 때려잡아서 나누어 갖도록 하자.”
다섯 놈들이 방을 둘러싸고 우루루 쳐들어갔다. 북곽 선생은 크게 당황하여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서 모가지를 두 다리 사이로 들이박고 귀신처럼 춤추고 낄낄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 버렸다.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들고 바라보니 뜻밖에 범이 길목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범은 북곽 선생을 보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쥐고 외면을 했다.
“어허, 유자(儒者)여! 더럽다.”
북곽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범 앞으로 기어가서 세 번 절하고 꿇어 앉아 우러러 아뢴다.
“범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대인(大人)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帝王)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 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며, 거룩하신 이름은 신령스런 용(龍)의 짝이 되는지라, 풍운의 조화를 부리시매 하토(下土)의 천신(賤臣)은 감히 아랫바람에 서옵나이다.”
범은 북곽 선생을 여지없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 듣건대 유(儒)는 유(諛)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죄다 나에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첨을 떠니 누가 곧이듣겠느냐?”
— 박지원, 「호질」에서 —

① 자연의 묘사를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② 시를 통해 인물의 속셈을 넌지시 드러내고 있다.

NoteBase

③ 동물을 의인화하여 유학자의 이중성을 들추고 있다.

④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로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호질」에서 자연 묘사, 시, 의인화, 언어유희가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묻는다. 작품의 중심은 북곽 선생으로 대표되는 유학자의 위선과 이중성에 대한 풍자이다.

핵심 개념

풍자는 대상의 모순과 허위를 드러내어 비판하는 표현 방식이다. 이 대목에서는 시와 우스꽝스러운 행동, 말을 하는 범의 모습, '유(儒)'와 '유(諛)'의 같은 소리를 이용하여 북곽 선생의 위선을 폭로한다. 자연물인 닭과 샛별은 사건이 벌어지는 밤의 배경을 보여 줄 뿐, 주제를 직접 강화하는 핵심 장치는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 '자연의 묘사를 통해 주제를 강화'한다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 '닭이 울고', '샛별이 반짝이는' 모습은 다섯 사내가 북곽 선생의 집을 찾아가는 밤의 상황과 분위기를 나타낸다. 주제 의식은 자연 묘사가 아니라 북곽 선생의 위선적 행태를 통해 드러난다.

② O - 북곽 선생이 읊는 시에는 원앙새, 반딧불이, 가마솥과 세발솥 등의 소재가 등장한다. 이는 고상한 선비인 체하는 그의 내면에 있는 속된 욕망과 위선을 넌지시 드러내는 장치이다.

③ O - 범은 사람처럼 말하고 북곽 선생을 꾸짖는다. 이러한 동물의 의인화는 오히려 사람인 유학자의 위선과 이중성을 더욱 선명하게 폭로한다.

④ O - 범은 '유자(儒者)'의 '유(儒)'를 '아첨한다'는 뜻의 '유(諛)'와 같은 소리로 연결한다. 같은 음의 한자를 활용한 언어유희로 유학자와 북곽 선생을 비판한다.

오답 포인트

①에는 닭, 샛별 같은 자연물이 제시되어 있어 자연 묘사가 핵심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연물의 존재만으로 주제 강화 기능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대목의 직접적인 풍자 장치는 범의 질책과 '儒/諛'의 언어유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학 감상 선지는 표현이 쓰였는지와 그 표현이 주제를 드러내는 핵심 기능을 하는지를 나누어 판단한다. 배경을 보여 주는 묘사와 인물의 위선을 직접 폭로하는 풍자 장치를 구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호질」은 범의 입을 빌려 위선적인 유학자를 풍자하며, '儒=諛'의 언어유희가 비판의 핵심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중 의미 중복이 없는 문장은?

① 투고한 원고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②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도보로 걸었다.

③ 요즈음 남자들의 절반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④ 버스 안에 탄 승객은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분들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 표현의 뜻에 이미 들어 있는 내용을 다른 말로 되풀이한 의미 중복을 가려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미 중복은 앞말이나 뒷말의 뜻이 다른 말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도 같은 뜻을 다시 쓰는 현상이다.
'투고하다'에는 원고를 보내다는 뜻이, '도보'에는 걸어서 간다는 뜻이, '승객'에는 교통수단을 타는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투고하다'는 원고를 보내다는 뜻이므로 '투고한 원고'에서 '원고'의 뜻이 겹친다. '원고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또는 '투고한 글은 돌려주지 않습니다.'로 고친다.
② X: '도보'는 걸어서 감을 뜻하므로 '도보로 걸었다'는 뜻이 겹친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걸었다.' 또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도보로 이동했다.'로 고친다.
③ O: '남자들의 절반'은 대상의 수량을,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그 대상의 행위를 말한다. 어느 한 표현의 뜻이 다른 표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미 중복이 없다.
④ X: '승객'은 교통수단을 타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므로 '버스 안에 탄 승객'은 탄다는 뜻이 겹친다. '버스 승객은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분들이다.' 또는 '버스 안에 탄 분들은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분들이다.'로 고친다.

오답 포인트

①의 '투고한 원고', ②의 '도보로 걸었다', ④의 '버스 안에 탄 승객'은 자연스럽게 자주 쓰여 중복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④에서는 '버스'라는 구체적 교통수단을 밝힌 것과 '승객'의 뜻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 표현의 사전적 뜻을 풀어 본 뒤, 바로 옆 표현이 그 뜻을 다시 말하는지 확인한다. '원고를 보내다', '걸어서 가다', '교통수단을 타는 사람'처럼 풀어 보아 같은 정보가 반복되면 의미 중복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투고=원고를 보내다, 도보=걸어서 감, 승객=교통수단을 탄 사람이다.

NoteBase

문 19. 다음은 안중근 의사의 재판 기록 중 최후 진술의 일부분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에서 검찰관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을 들으니, 모두들 이등(伊藤)의 시정 방침은 완전무결한데, 내가 그것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다. 이등의 시정 방침은 결코 완비된 것이 아닐진대 어찌 오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등의 시정 방침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으나, 이등이 한국에서 주재하며 대한 정책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자세히 말할 시간이 없으므로 그 줄거리만을 말하고자 한다. …(중략)… 이와 같이 오늘 내가 말한 여러 계급의 인사들에게 다시 물어봐도 모두 동양의 평화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줄 안다. 그와 동시에 간신 이등을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일본인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한국인으로서는 자기의 친척과 지기(知己)의 죽임을 당하는 마당에 어찌 증오해 마지않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내가 이등을 죽인 것도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 한 것이지 결코 자객으로서 한 것은 아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친선을 저해하고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힌 장본인은 바로 이등이므로, 나는 한국의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서 그를 제거한 것이다.

① 안중근 의사는 검찰관의 논고를 듣기도 전에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② 안중근 의사는 이등을 제거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③ 안중근 의사는 이등의 시정 방침이 완벽하지만 동양 평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④ 안중근 의사는 여러 일본인의 의견을 언급하면서 이등을 제거한 행위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안중근의 최후 진술에 나타난 발화 순서와 이토 제거 행위의 정당화 논리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적 복수는 개인적 원한 때문에 상대를 해치는 행위이고, 공적 의거는 공동체의 대의와 공적 목적을 위해 행한 행동이다. 안중근은 이토 제거를 사적 복수가 아니라 의병 중장으로서 동양 평화를 해친 장본인을 제거한 공적 의거라고 규정한다.

역설적 강조는 상대편의 입장이나 인정할 만한 사실을 먼저 언급한 뒤,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지문의 첫머리에서 안중근은 이미 "검찰관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을 들으니"라고 말한다. "듣기도 전에"가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검찰관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을 들은 뒤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② X. 안중근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지 않는다. "결코 자객으로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이토 제거를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 한 일이라고 정당화한다. "잘못되었음을 시인" → 올바르게는 사적 암살이 아니라 공적 의거였다고 주장한다.

③ X. 안중근은 이토의 시정 방침이 "결코 완비된 것이 아닐진대"라고 하여 그 완전성을 부정한다. 또한 이토를 두 나라의 친선과 동양 평화를 어지럽힌 장본인으로 본다. "시정 방침이 완벽하다" → 올바르게는 이토의 시정 방침은 완비되지 않았으며 동양 평화를 해쳤다고 본다.

④ O. 안중근은 여러 계층의 일본인도 동양의 평화를 바란다고 말한 뒤, 일본인도 이토를 중시하는 만큼 한국인이 이토를 증오하는 까닭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인의 의견을 끌어들여 이토 제거가 동양 평화를 위한 의병의 행위였다는 주장을 역설적으로 강화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친척과 자기의 죽임"을 언급한 부분만 보고 사적 원한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바로 뒤에서 사적 자객 행위를 부정하고 의병 중장으로서 이토를 제거했다고 밝혀, 개인적 감정과 공적 정당화가 구별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의 행위 동기를 묻는 지문에서는 개인적 감정이 언급되었는지에만 머물지 않고, 화자가 결론에서 자신의 행위를 어떤 자격과 목적의 행위로 규정하는지 확인한다. 진술 순서는 "앞에서", "들으니" 같은 시간 표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안중근의 논리: 사적 복수 X, 의병 중장의 공적 의거 O. 이토 제거의 목적은 동양 평화 회복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 세대에 자신의 모어(母語)를 전달하지 않고자 하는 행위를 '언어 자살(language suicide)'이라고 한다. 언어 자살은 명백한 외부의 강압이 없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가령, 멕시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토토낙어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지역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는데도 이 지역 사람들은 모어 대신 스페인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언어 교체 현상을 멕시코 정부가 부추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에 의하면 언어 자살은 '정체성 상실, 사회 붕괴, 세대 간 문화적 연속성의 결여 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원인이자 결과이자 배경이다. '나는 부모님들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겠어.'라는 집단적 자각이 한 세대로 하여금 단체로 모어 사용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는 셈이다.

①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지배 전략 가운데 언어 말살 정책은 언어 자살 현상의 대표적 사례이다.

② 모어를 계승하려는 언중의 의지가 언어 자살 현상의 발생 가능성에 변수가 될 수 있다.

③ 멕시코 정부의 공식적인 언어 정책이 특정 지역의 언어 교체 현상을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부모 세대와 다르게 살겠다는 자식 세대의 집단적 자각은 언어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외부의 강압에 따른 언어 말살과, 한 집단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자발적으로 모어 사용을 포기하는 언어 자살의 차이를 묻는다.

핵심 개념

언어 자살은 다음 세대에 모어를 전달하지 않으려는 집단적 선택으로, 명백한 외부 강압 없이 비교적 단기간에 나타나는 언어 교체 현상이다.
언어 말살은 식민 지배 등 외부 권력이 특정 언어의 사용을 억압·금지하여 소멸시키는 현상이다.
언어 자살은 정체성 상실, 사회 붕괴, 세대 간 문화적 연속성의 결여와 서로 원인·결과·배경으로 얽힐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언어 말살 정책은 언어 자살 현상의 대표적 사례'이다. 서구 열강의 식민지 지배 아래 이루어진 언어 말살은 외부 권력의 강압에 따른 것이므로, 외부 강압이 뚜렷하지 않은 언어 자살의 사례가 아니다.
② O. 모어를 계승하려는 언중의 의지는 다음 세대에 모어를 전할지 결정하는 요인이므로 언어 자살의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③ O. 지문은 멕시코 정부가 토토낙어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지역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도 보였다고 하므로, 정부의 공식 언어 정책이 그 지역의 언어 교체를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④ O. '부모님들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겠다'는 자식 세대의 집단적 자각은 부모 세대의 문화와 모어를 잇지 않으려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언어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언어가 사라진다는 결과만 보고 언어 말살과 언어 자살을 같게 본 함정이다. 두 현상은 소멸의 주체와 원인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언어 소멸 현상에서는 먼저 외부 권력의 금지·억압이 있는지, 아니면 언중이 세대 간 전승을 스스로 끊는지로 구분한다. 전자는 언어 말살, 후자는 언어 자살에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언어 말살은 밖에서 억압하고, 언어 자살은 안에서 전승을 끊는다.

NoteBase